

삿포로의 자연 속 휴식 공간— ‘나카지마 공원’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중국국제교류원 왕 유안(王媛)입니다.

저는 작년 4 월말부터 삿포로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기 전 부터 삿포로는 저에게 굉장히 친근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 유학하던 시절에 삿포로로 여행을 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었던 저는 그때 오도리 공원과 시계탑, 시로이 고이비토 파크, 홋카이도청 아카렌가 청사, 마루야마 동물원, 다누키코지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를 방문했는데, 실제 삿포로에서 생활하게 된 뒤로는 이전에는 몰랐던 관광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카지마 공원’입니다.



(나카지마 공원 출처:삿포로시 관광사진 라이브러리)

나카지마 공원은 삿포로시 주오구(中央区)에 위치하며 지하철 난보쿠선 ‘나카지마코엔 역’에서 하차해 1, 3 번 출구로 나가면 공원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일본 도시공원 100 선’에 선정되어 있으며 도심에 가까운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삿포로 시내에서도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중국에서 유래된 은행나무, 버드나무, 목련나무도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는 쇼부이케(菖蒲池; 창포연못)라 불리는 연못이 있어 벤치에 앉아 모이와 산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트에 앉아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리들이 노니는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대인에게 이러한 자연 속 휴식 공간은 심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소일 터입니다.

공원 안에는 일본정원도 조성돼 있는데 이 정원에는 핫소안(八窓庵)이라 불리는 작은 차실(茶室)이 있습니다. 다다미 3 장 정도의 넓이로 매우 협소해 골격이 큰 서양인은 물론 현대 일본인들도 안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이런 작은 공간에 주인과 손님이 마주 앉아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름대로 핫소안(八窓庵)에는 8 개의 창문(살창 3 개, 지하창 4 개, 들창 1 개)이 있습니다. 핫소안 정면에는 ‘망전(忘筌)’이라 적힌 편액이 걸려있습니다. ‘망전’은 중국 고전 ‘장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전(筌)’은 물고기를 잡는 통발을 뜻합니다. 즉 ‘망전(忘筌)’은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통발(筌)을 잊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차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차도를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 그에 집착해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핫소안’을 나와 좀 걸으면 ‘호헤이칸(豊平館)’에 다닙니다. 호헤이칸은 홋카이도 개척사가 건축한 서양식 호텔로 삿포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건물’로서 보존돼 왔습니다. 호헤이칸은 메이지 초기의 대표적인 서양식 목조건물입니다. 미국 건축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사용해 지어졌습니다. 새하얀 미늘판에 울트라 마린 블루색의 창틀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외관이 특징적입니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 3 대에 걸쳐 황족가문이 방문했으며 그후에도 오래토록 삿포로의 문화활동 거점이 되었습니다. 2011 년까지는 시영 결혼식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호헤이칸 출처:삿포로시 관광사진 라이브러리)

호헤이칸을 나서면 이따금 첼로 같은 악기를 등에 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보면 삿포로 콘서트홀 Kitara 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Kitara 는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음악 이벤트 ‘PMF(Pacific Music Festival)’의 회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년 세계 청년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훌륭한 연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데 올해로 3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PMF 는 매년 삿포로에서 개최되고 있으므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PMF 회장에 꼭 한 번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나카지마 공원 부지 바깥이기는 하지만 Kitara 바로 근처에 ‘와타나베 준이치 문학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 ‘실낙원’의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므로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삿포로 축제’라고도 불리는 홋카이도 신궁제(6월 14일~16일) 기간이 되면 홋카이도 신궁뿐만 아니라 나카지마 공원에도 많은 음식판매 부스와 귀신의 집 같은 어트랙션이 세워집니다. 이 시기에 삿포로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나카지마 공원에 들러 매력 넘치는 삿포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카지마 공원 홈페이지

<https://www.sapporo-park.or.jp/nakajima/>

호헤이칸(豊平館) 홈페이지

<http://www.s-hoheikan.jp/>

Kitara 홈페이지

<https://www.kitara-sapporo.or.jp/>

홋카이도 신궁제

http://www.sapporo.travel/event/summer/hokkaido_shrine_festival/